

교육재정확보 필요성 인식 공유

— 92년도 등록금 투쟁을 평가한다 —

〈서울캠퍼스〉

92년 교육재정투쟁의 일환으로 시작된 등록금 협상이 지난 30일 학생대표와 학교측이 가합의서를 채택함에 따라 일단락 되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지난 동계방학기간 학교측에게 92년도 가예산서를 접수 받아 작년 합의서와 어긋나는 점들을 파악, 협상주체들을 구성하여 학교측과 2차례 사전접촉을 가지는 등 등록금 협상의 준비작업이 작년 말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총학자세내의 회의를 통해 89년도 이후 시작된 등록금 협상이 일반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등의 오류를 지적, 학생들과 함께 하는 협상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분별협을 개강과 함께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본 협상은 3월 초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등록금 협상은 총선시기와 겹쳐 총학사업이 등록금 협상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학교측의 입장고수로 등록금 협상이 지연되어 학교측의 등록금 일방고지라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지난 30일 도서관장실에서 10여 시간의 협상이 진행된 끝에 학생대표와 학교측이 가합의서에 사인을 함으로 인해 92년도 등록금은 마무리가 되었다.

87년도 학원자율화 조치이후 등록금의 책정은 대학 자율에 맡겨졌다. 그후 시작된 학교·학생과의 등록금 협상은 등록금 금액의 인상률만 논의하는 등 학생들의 내세웠던 학원자율화투쟁으로 퍼지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92년도 등록금 협상은 금액만의 논의가 아닌 국고보조금 확충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학교·학생 공동노력, 학자투로 나아가는 시발점을 만들었다.

92년 가합의서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확충을 위한 학원의 제주체들은 공동노력'의 항과 같이 사립대학의 재정이 열악함을 공동인식하는 등 교육의 주체가 학원·학생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에도

책임이 있음을 각인하고 국고보조금 확충을 요구하였다. 91년 합의서 내용중 가정대 건물 신축은 9월 착공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완공일이 불분명했으나 이번 가합의서에는 93년 8월중으로 완공한다는 조항을 삽입 공사가 진척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성과물들이 있지만, 아직도 체대·음대생들을 투쟁의 대오속에 끌어들이지 못한 점과 수원과의 연계가 단지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 일방 학생들 앞에서 악수를 하는 것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점을 인지한다면 이후 협상에 있어 연대사업은 좀더 힘있게 이

행사에서 승리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올해의 등록금 투쟁을 예년과 달리 교육재정확보 투쟁(이하 교재투)이라는 대전제

하에 학교와의 등록금인상을 조정차원에서 벗어나 정부와 재단의 책임을 묻는 한단계 더 발전된 시점에서 진행했다. 총학생회는 모든 협상에서 교재투의 3대 기본과제를 등록금의 민주적책정과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대정부추진단인 학교당국, 학

생 공동성명서의 채택, 대학발전을 위한 교수·학생협의회의 교육협의체 건설로 잡고 학교측에 이의 실천방안을 요구했다. 반면, 학교당국은 공동성명서 채택의 경우 학생들과 인식의 불일치가 있었으나 방법상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당국, 학생 각자가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자는 등의 입장을 보여 91년 등록금협상과도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 총학생회는 교재투기간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교육재정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몇가지 오류들이 지적되고 있다. 총장과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무협상속에서

투쟁과 총장과의 협상요구를 위해 서울캠퍼스 본관을 점거하며 철야농성을 한 총학생회는 20일 총장과의 협상에서 일방고지와 제적설에 대한 총장명령의 해명을 실은 가정통신문에 대한 합의만을 본채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학교측에서는 총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부총장이야 실무자들과 협상을 계속할 것을 학생측에 권유했으나 총학생회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총장과의 협상을 요구하고 나와 한채 협상이 난항에 빠지기도 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며 총학으로 남부한 학생들이 제 증명서를 떼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3주간의 행정마비로 인한 업무차질이 빚어지자 학교당국과 학생측이 서로 수성안을 내보이며 실무협상의 자릴 만들어 입정들을 좁혀나갔다. 총학생회는 지난5월2일 두차례에 걸친 실무자 만담에서 등록금 12%인상에 반하는 서울과 동일한 인상률등으로 가합의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합의서의 내용: 표 1)(2)참조

앞으로 지난해 합의했던 내용 점검과 각 단계에서 취한한 1인1인상에 반하는 서울과 동일한 인상률이 남는 지금 올 등록금협상의 해와실을 최종 진단체 보고자 한다. 한편 지난14일 서울과의 연대

투쟁과 총장과의 협상요구를 위해 서울캠퍼스 본관을 점거하며 철야농성을 한 총학생회는 20일 총장과의 협상에서 일방고지와 제적설에 대한 총장명령의 해명을 실은 가정통신문에 대한 합의만을 본채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학교측에서는 총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부총장이야 실무자들과 협상을 계속할 것을 학생측에 권유했으나 총학생회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총장과의 협상을 요구하고 나와 한채 협상이 난항에 빠지기도 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며 총학으로 남부한 학생들이 제 증명서를 떼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3주간의 행정마비로 인한 업무차질이 빚어지자 학교당국과 학생측이 서로 수성안을 내보이며 실무협상의 자릴 만들어 입정들을 좁혀나갔다. 총학생회는 지난5월2일 두차례에 걸친 실무자 만담에서 등록금 12%인상에 반하는 서울과 동일한 인상률등으로 가합의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합의서의 내용: 표 1)(2)참조

앞으로 지난해 합의했던 내용 점검과 각 단계에서 취한한 1인1인상에 반하는 서울과 동일한 인상률이 남는 지금 올 등록금협상의 해와실을 최종 진단체 보고자 한다. 한편 지난14일 서울과의 연대

〈표2〉수 원(91·92 가합의서 비교)

91 합의서	92 (가)합의서
○장기적인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학생·학교측은 노력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활동 상호 전개
○학교의 제한공간문제는 학생의 권을 수렴한 공간조정협의회를 구성, 노력	○일방고지와 제적에 가정통신문에 대한 총장의 해명 담은 가정통신문 발송
○91년 등록금책정은 90년대비 14%인상(신입생 입학금은 동결, 기존제원차이도 적용)	○재단의 예·결산서 공개
○복지기금 운영계획 및 공개 토개선	○92년 등록금책정은 91년대비 14%인상 (단, 신입생 입학금은 20만원)
○장학금 수혜의 폭 확대	○교육협의체의 구성을 학교측은 인정
○우수교원 총당	○신입생 입학금은 20만원으로 동결

이번 교재투의 성과물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재단의 공개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재정확보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공유에 있다. 그동안 등록금협상에 있어서 재단전입금의 문제가 제기될때마다 학교측으로부터 '재단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답변만 되풀이 돼 납득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번 기회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등록금의 문제를 사학의 책임으로 돌리던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부, 재단, 학교, 학생 모두의 책임임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반면, 실제로 등록금협상 내용과 투쟁에 있어 서울과의 연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으며 체과대와 같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철야농성을 위주로 진행된 투쟁모습들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후 학교당국은 가합의서 작성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다음협상에서 명확히 밝히고 강제해가야 할 것이다. 또한 총학생회는 교재투로 총학했던 비상체제를 풀고 내실을 기해 이후의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취재부〉

열악한 교육환경 대책 마련 시급

올바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제언

우선 우리대학의 근본적인 문제를 국민 다수가 알아야만 정부가 올바른 교육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대학의 기능은 첫째로는 도덕과 양심,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이론 및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 셋째로는 지역 사회 및 시민에 봉사하는 것이다. 이 중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외국 선진국의 경우 이 세가지 분야, 즉 교육(Teaching)-연구(Research)-지역봉사(Service)중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대학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어떠한가? 물론 이중 어느 한분야 제대로 하는 것이 없었던 아니라고 정부는 대학의 문제를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시각으로 정부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한 정책도로 서울소재대학의 지방캠퍼스 건설을 장려했으며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근대에는 이공계 대학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적 또는 다른 제도적 지원없이 수도권대학의 지방캠퍼스를 육성함으로써 신규시설 투자 과다로 인해 사립대학의 재정을 고갈시켰으며 이는 결과적

으로 도서관과 실험실이 없는 대학을 육성하여 교육 및 연구의 질을 저하시켰다. 신도시건설의 경우 신도시 거주자를 위한 교통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만의 사람이 이동해야하는 지방캠퍼스건설의 경우 이에 따른 정부의 교통계획이란 전무하여 열악한 통학환경으로 인해 학생의 학구열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대학의 입지는 기존 도시계획을 고려해서 대학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대학을 필요로 하는 시설을 조화롭게 위치시켜야만 대학의 지역봉사도 가능한 것인

다 신설대학의 경우 대부분 미개발지역의 외진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대학처럼 우리의대학이 지역사민을 위해 문화공연을 하고 주부들을 위해 야간강좌를 개설하는 사회봉사기능을 제공하려면 어떻게 기대하겠는가? 대학의 지역봉사는 지역사민에게 문화적, 교육적

이로 열악한 교육 및 연구환경을 가져온 대학의 재정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절대적 책임에 종속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많은 미국대학의 경우 학생의 등록금, 정부보조금, 학부비 및 동창의 기부금, 기업 및 정부기관 지원되는 연구비가 거의 같은 비율로 대학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대학은 대학



한 상 연
(사회대 교수·행정학)

지방캠퍼스 건설로 사학재정 고갈 정부가 연구비투자 선도적 역할해야

해책을 줄 뿐 아니라 대학의 재정에도 적지않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지역이든 장기 도시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 장기개발계획에 따라 대학의 입지를 심사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또한 그렇지 못한 경우 기존 개발계획을 수정해서라도 대학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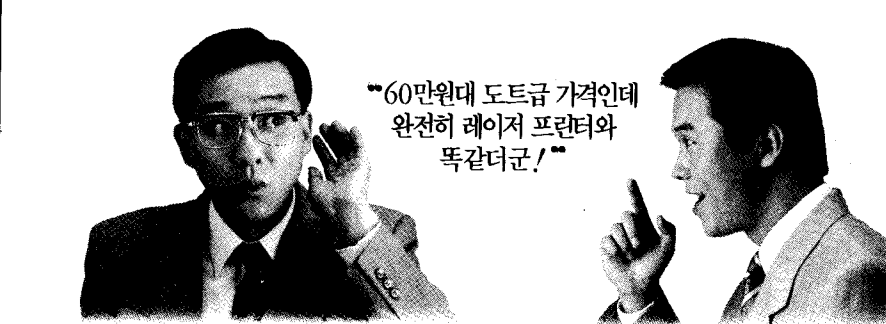
이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것은 대학재정문제의 뿌리를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찾고자 했을 뿐

예산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불행하게도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과 학교간의 등록금에 관한 마찰은 대부분 재단전입금의 액수에서 비롯되고 있다. 재단과 학생의 출타리기는 결국 우리대학의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매우 근시안적인 시도에 불과한데도 대학당국과 학생은 힘이 없는 서로에게 매달리고 있다.

우리대학의 재정문제해결은 다각도로 근본적인 치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첫

의 고리를 하루빨리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이 연구비투자자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일례로 미국 일리노이 주정부는 하천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해 수십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일리노이대학에 제공하였고 대학은 이 연구비로 인분자 전문가인 교수를 채용하고 최신킨컴퓨터시설을 구입하였으며 대학원생 20여명에게 10여년간 등록금과 장학금을 지불한 사실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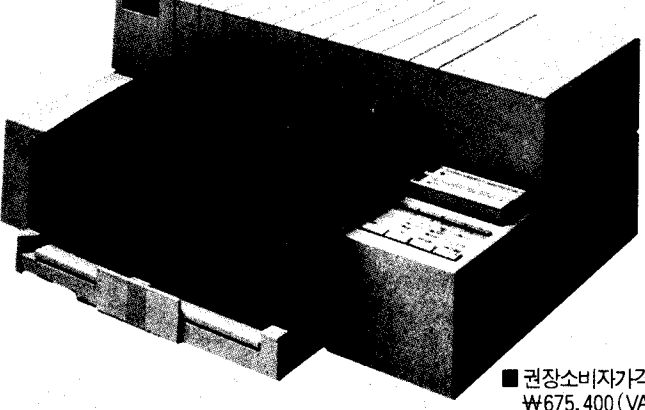
자금 몇개 대학에서 겪고 있는 학생과 대학당국간의 등록금인상에 따른 마찰과 이에 따른 학내 소요를 방관할 수 있는 입장에 서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정부나 학부협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장래를 걱정하는 우리모두의 문제이며 대학의 재정난에 따른 문제는 다각도에서 힘을 모아 근본적인 치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이상 지식과 인적배양의 전담을 대학생들의 표현대로 등록금투쟁 및 수업거부의 현상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



왜 너도나도 HP 데스크젯 프린터를 찾는가?

‘도트급 가격으로 레이저급 성능을 발휘하는 프린터’ HP데스크젯

프린터의 혁명을 가져온 HP데스크젯— 발명되자마자 선풍적인 화제를 일으킨 HP데스크젯이 드디어 잉크젯 프린터의 새시대를 열었습니다. HP데스크젯은 종래 사용하던 구세대 도트매트릭스의 가격대인 60만원대이지만 미려한 한글, 한자체는 물론, 그래픽까지 300DPI의 해상도로 완벽하게 지원되는 차세대 레이저급 프린터입니다.



저소음을 실현했습니다.

쾌적한 실내분위기를 보장하는 소음레벨은 50dB — HP데스크젯은 보다 낮은 43dB로 조용하고 빠른 인쇄를 실현했습니다.

HP와 삼성이 함께 보장하는 3년간의 애프터서비스

88년, 89년 2년 연속 FORTUNE지가 선정 No.1의 컴퓨터 회사인 휴렛팩커드 — 휴렛팩커드는 한국 컴퓨터산업을 이끌어가는 삼성컴퓨터와 함께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HP데스크젯의 애프터서비스를 3년간 보증합니다.



*삼성컴퓨터 전기종과 접속이 가능합니다.

휴렛팩커드



클로버 서비스
삼성컴퓨터 교육상담실
080-022-3366

■ 컴퓨터부서 PC사업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번지 대우빌딩
■ 고객센터 (교육 및 A/S): 강남: (02)565-3388 • 광복: (02)987-3388 • 강서: (02)365-3388 ■ 지방영업소 (교육 및 A/S) • 부산: (051)818-4451~2 • 대구: (053)742-1215~7 • 광주: (062)526-9470~1 • 대전: (042)252-5582~4 • 경남: (051)62-2550~3 • 인천: (032)518-0105~8 • 수원: (0331)210-4818~9 • 원주: (0371)731-6900~9